



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기억과 기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수집

- 증언대상 :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 증언방법 : 피해자 방문 인터뷰
- 문의처 : ☎ 051) 629-8634

※ 피해 생존자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대연동 산 204-1)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39 Homepage <http://museum.ilje.or.kr>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FoMo

Forced Mobilization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매거진

Winter 2020

Vol.17

오늘도
그립습니다





Fo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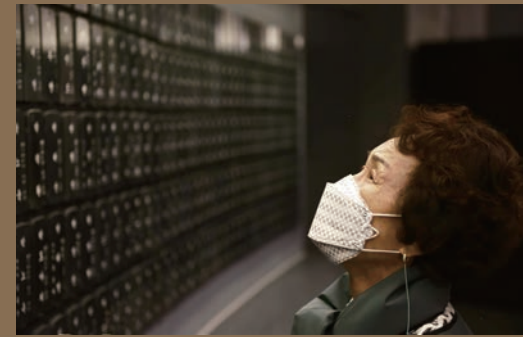
Forced Mobilization

PHOTO ESSAY 오늘도 그림습니다

- 06 함께하는 역사관
- 08 역사관 유물 수집
- 11 역사관 사업 만나기1
- 12 근현대사 강의실
- 14 역사관 이야기
- 15 역사관 사업 만나기2
- 1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야기1
- 2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야기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위패 안치식

역사관 기억의 터에 278위 위패 안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립망향의동산 임시 안치 위패 143위와 신규 위패 135위를 2020년 12월 9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패관 기억의 터에 안치했다. 이번 안치식에서는 지난 2009, 2010년 국립망향의동산 봉안당에 임시로 안치되었던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 385위 가운데 143위를 유족들의 요청에 의해 봉안하였다. 또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신규 위패를 신청한 135위를 포함해 모두 278위의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를 안치하였다. 이들의 희생지역은 일본이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군도 61명, 파푸아뉴기니 30명, 필리핀 27명, 러시아 사할린 19명, 중국·대만 20명 등이다. 위패 안치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이 유해를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위패를 모시는 것으로 현재 정부에 신고되어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는 2만 여 명에 이르고 있다. 위패 안치식은 국민의례, 위패 안착식, 추모사, 위패관 관람 순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대 행사를 자제하고 간소하면서도 엄숙하게 치렀다.

글 서인원 (기획홍보국 팀장)

아버지와의 기억을 기증하다

2020년

역사관 수집(기증, 구입) 유물 소개



△ 피해자 김원선(가운데)이 강제동원 되기 직전에 남동생(왼쪽), 동서(오른쪽)와 함께 찍은 사진.
피해자가 안고 있는 어린아이가 김의추 기증자. 당시 3~4살로 추정.

김의추, 장현자, 최세영 씨 역사관에 자료 기증

김의추 씨를 비롯한 세 분이 총 36건 49점의 자료를 기증했다.

2020년 역사관에 귀중한 소장 자료를 기증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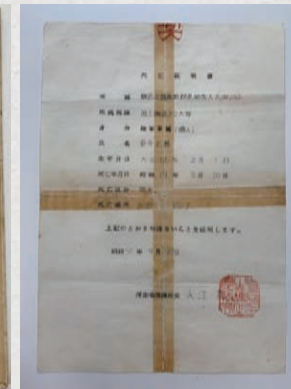
피해자 김원선 씨의 강제동원 사실 보여주는 사망증명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원선 씨의 사진과 사망증명서는 기증자 김의추 씨가 모친께 전해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역사관에 원본을 기증하였다. 김원선 씨는 육군 군속(선박사령부 예하 해상수송대)으로 강제 동원되어 뉴기니아섬 서부에서 사망하였다. 사진을 찍었던 당시에는 동서와 함께 일본에서 배를 타는 선원이었고, 그 후에 군속으로 동원되어 군수품 등 물자를 수송하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사망증명서는 1983년도에 후생성 원호국으로부터 발급 받은 것으로, 인적사항과 사망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는 유족의 요청으로 후생성에서 증명서 등 답변서를 보내온 것으로, 역사관 소장 자료 중에도 이와 유사한 피해자 최해종과 관련한 후생성 민원 회신문서, 사망증명서가 있다. 역사관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피해자들의 사망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발급한 각종 사망증명서의 형태와 문구 등을 비교해볼 수 있는 중요 사료로 판단하였고, 이 외에 사망증명서가 들어있던 우편봉투와 동봉된 안내문, 공탁금 관련 안내문에 대해서도 수증 가치를 인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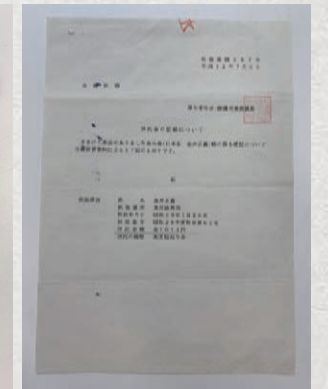
△ 가족사진



△ 사망증명서
(후생성 원호국 1983.9.27. 발급)



△ 우편봉투



△ 공탁금 관련 안내문
(후생성 사회·원호국 2000.7.5. 발급)

기증

전쟁 상황 생생하게 알려주는 피해자 장운만씨의 수기집, 대동아전쟁실기집

기증자 장현자 씨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장운만 씨의 장녀로, 부친의 유품인 수기집을 소장하고 있다가 2019년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 8월에 원본을 역사관에 기증하였다. 이 수기집은 피해자 장운만 씨가 1944년 6월에 징병되어 일본군 경성사단사령부에 소속되었다가 일본 오키나와 현의 아카지마(阿嘉島)와 자마미지마(座間味島)에 군속으로 동원되어 미군 포로가 되기까지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에는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휴대하고 있던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보존하다가 귀환 후, 동생에게 정서(正書)하게 하여 1948년 2월 4일에 '대동아전쟁실기집'이라는 제호의 수기집이 탄생하게 되었다. 역사관에서는 수기류의 자료가 피해자들의 구술자료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야할 사료로 판단하였고, '대동아실기집'과 더불어 해당 수기집의 텍스트 원고, 피해신고서 등 강제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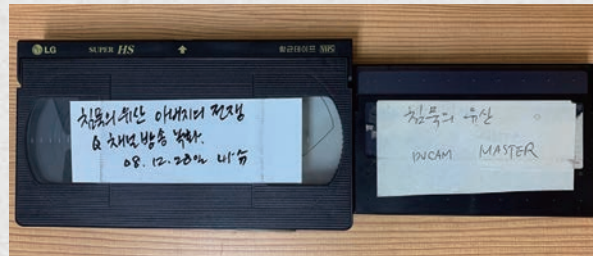


△ 대동아전쟁실기집 표지

피해 심의자료 5종을 함께 기증받았다. 현재 역사관에는 ‘북해도 고락가’, ‘반일고려독립청년당실기’, ‘남양군도 징용살이’ 등 강제동원의 경험과 목격담에 대한 기록물을 소장 중이다. 수기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발간도서 <강제동원 수기집 『대동아전쟁실기집』>(2019)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증

BC급 전범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과 자료



△ 다큐멘터리 <침묵의 유산, 아버지의 전쟁> 영상 테이프 - 최세영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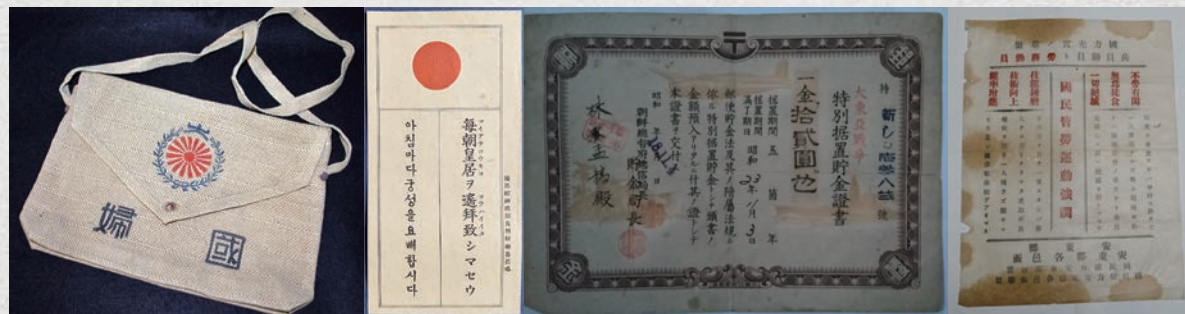
최세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침묵의 유산, 아버지의 전쟁>(50분, 단편작)은 2008년 한국 전과진흥원 제작지원 사업 공모 당선작으로, 한국 일본의 BC급 전범 피해자와 그 유족을 다룬 작품이다. BC급 전범 한국인 강태협(강태협)의 아들 강도원 그리고 BC급 전범 일본인 고마이 미쓰오(駒井光男)와 고마이 오사무(駒井修)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았지만, 제목처럼 그들에게 ‘아버지의 전쟁범죄’는 말할 수 없는 침묵의 유산인 셈이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침묵의 유산이라는 이름하에 한국인 전범 아들과 일본인 전범 아들의 동행을 통해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누가 무엇을 단죄했는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다. 기증자 최세영 감독은 영상과 함께 BC급 전범과 관련된 각종 자료(DVD, VHS, 도서, 화보, 자료집 등)를 기증하였으며, 그 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강태협의 영국전범재판기록’, ‘포로감시원 전정근의 수기(절판 도서)’, ‘BC 강제동원 증거 자료집’ 6권 등은 역사관에서 수집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증 영상은 향후 전시, 상영회 등에 활용하고, 기타 자료들은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입

일제강점기 식민지 정책 관련 유물 26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2020년 공개 유물 구입을 통해 총 26건 47점의 유물을 매도하였다. 대부분 일제강점기 식민지 정책 및 강제동원과 관련된 자료(문서, 사진, 엽서, 도서, 책자, 박물 등)이고, 향후 전시, 교육, 연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개 구입 유물 화상은 역사관 홈페이지-열린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 주요 구입 유물 소개



△ 애국부인회 가방

△ 궁성요배 전단

△ 대동아전쟁 특별거치저금증서

△ 국민총력운동 선전 전단

글 반선영 (역사관 TF팀장)

역사관 스마트화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일제 강제동원 명부 디지털화 사업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일제 강제동원 연구와 대국민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명부 디지털화 사업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추진하는 것으로 역사관과 기록원의 일제 강제동원 관련 명부 등 자료 약 102,000매가 디지털화 된다. 기관별 대상 자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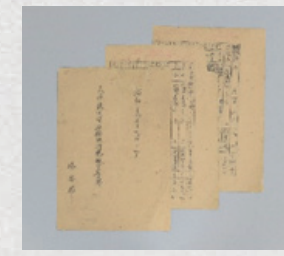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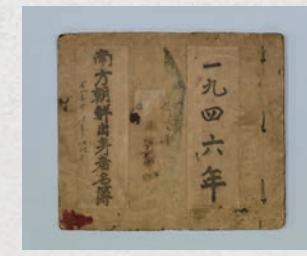
역사관 소장 명부, 문서 등 약 4,700매와 기록원 소장 명부, 총독부 간행물, 김광렬 기증 자료 등 약 97,300매로, 330dpi 이상 해상도로 디지털화 될 예정이다.

* 해당 사업의 정식 명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일제 강제동원 관련 명부 등 디지털화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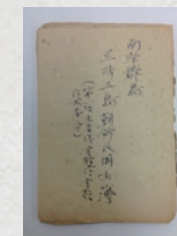
• 일제 강제동원 명부 디지털화 사업 대상 목록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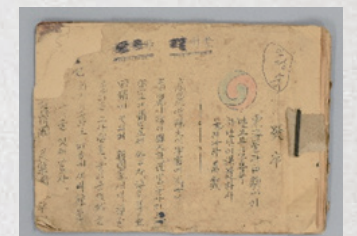
△ 박노학 수신편지

△ 가와사키(川崎)조선소행
응징사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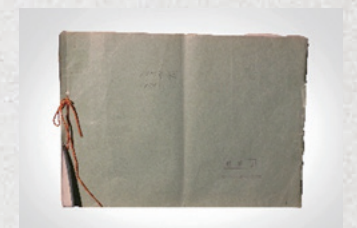
△ 1946년 남방조선출신자명부

△ 하이난섬(海南島)
조선군인자영대명부△ 십자성맹우회회원록
(대만한적관병집훈총대)

△ 남방트럭섬(トラック島) 피징용자명부



△ 하이난섬(海南島) 강제동원귀환자명부

△ 자카르타 마쓰자와대연명부
(松澤隊連名簿)△ 하와이포로수용소명부
(자유한인보 제7호 부록)

△ 화태(樺太)억류등포귀환희망자명부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권리로 만드는 과정



△ 지난 10월 17일 임재성 변호사 강연 모습

2020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인문학 특강이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와 강혜경 교수(숙명여자대학교)의 강의로 대미를 장식했다. 노무동원(징용)과 관련한 소송을 맡아 진행하며 KBS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시사직격'의 진행자로도 맹활약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10월 17일 열린 인문학 특강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주제로 열강을 펼쳤다.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권리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강제동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현실과 그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1월 14일에 열린 올해 마지막 인문학 특강은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강혜경 교수가 맡았다. 강 교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일본군'위안부'와 여성근로정신대 등 여성과 관련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올해 인문학 특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년보다 늦은 6월 말 1강을 시작해 일부 강의는 한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총 5강을 마쳤다. 지난해 인문학 특강이 역사와 문학, 박물관 등 다소 폭넓은 주제로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지난해 참가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일제강제동원'이라는 통일된 주제로 5강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청정한 환경에서 강사와 수강생이 마스크를 벗고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보다 알찬 기획으로 다시 만나고자 한다.

글 이정섭 (역사관 직원)

우키시마호 사건을 기억해야하는 이유



△ 지난 11월 9일 김문길 소장 강연 모습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지난 11월 9일 오후 2시, 한·일 관계 문제 전문 연구자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前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학장)을 초청하여 우키시마호 사건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김문길 소장은 강연을 통해 우키시마호 사건 당시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모비 건립, 추모제 진행, 유해 발굴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청중들에게는 잊혀져가는 우키시마호 사건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고, 관계 전문가들에게는 우키시마호 사건을 전시, 교육 등과 연계하여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다.

설 곳을 잃은 우키시마호 폭침 한국 희생자 추모식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일본 오키나와 항구를 출발해 부산항으로 향하던 우키시마 호가 폭발해 조선인 등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2002년부터는 우키시마호 폭침 한국 희생자 추모식이 우키시마호폭침한국희생자추모협회의 주최로 부산 중구 수미르 공원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시의회, 교육청, 남구청 등 많은 기관의 후원과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행사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 행사장 개발로 인해 추모식 장소는 물론 기념비도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김문길 소장은 강연을 통해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규명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추모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신랄한 지적에 감사

역사관 운영위원회 '21년 예산안, 스마트박물관 조성 사업, 상설전시실 부분 정비 사업 등 검토



△ 지난 10월 15일 역사관 운영위원회 진행 모습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5일 6층 멀티미디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총 9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하여 역사관의 '21년 예산안, 스마트박물관 조성 사업, 상설전시실 부분 정비 사업, 업무분장, 경영평가 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견으로 · '21년 예산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사업 예산 확대 배정 · 스마트박물관 조성 사업 위한 대규모 예산 증액 요구 · 업무분장 관련해 직원의 개인역량 강화 · 경영평가 중 직원 화합이 중요한 평가 지표이며 집중 등이 언급되었다. 이외에도 역사관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이 제시되는 등 유의미한 회의가 되었다.

• 참석 운영위원 소개

1	강고원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서기관
2	김경선	갤러리폼 대표
3	박철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장
4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전문위원
5	이송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
6	차철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소장
7	최로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도슨트회 회장
8	허영란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9	홍순권	동아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역사관 새단장하는데 꼭 와주실거죠?

스마트 전시해설 서비스 구축, 전시유물 교체, 외국어 전시패널 보강, 온라인 전시, 그림자 애니메이션 등 상설전시실 부분 정비 사업 박차



△ 도서관 개관 준비 작업 모습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전시실 환경을 최신화하고, 전시유물 교체 및 재배치를 통해 소장유물의 활용도를 높이며, 미흡한 외국어 전시패널 보강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전시해설 서비스 도입을 통해 관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기존 오프라인 전시의 틀을 깬 온라인 전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영상 기법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와 그림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언제, 어디서든 역사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산책' 개관 준비, 어린이체험관 연계 인형극 준비 착착!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는 지난 5년 동안 마무리 되지 못한 공간이 있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공간의 사용에 대해 문의했고, 역사관은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증액을 요청해왔다. 현재 예산증액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역사관은 유휴공간을 도서관으로 활용할 준비에 나섰다. 첫 단계로 김문길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증도서 5,000권을 정리한다. 정리 중인 도서는 김문길 교수가 연구를 위해 평생 수집한 도서들로 강제동원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역사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도서를 공개하면 정말 반길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어린이체험관에 꼭 와보고 싶게 만드는 인형극을 준비한다. 그동안 역사관에서 미흡했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보완하고자 기획한 인형극은 강제동원을 주제로 시작해 인권, 평화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희생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 그리고 유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1월 13일, 14일 이틀간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 그리고 유해’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은 당초 일본 홋카이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지 및 시기를 변경하여 국내 제주도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현안에 대한 학술회의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소통과 공유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유해 수습·발굴·봉환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온·오프라인 동시개최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국제 심포지엄은 서승 우석대 석좌교수, 정병호 한양대 명예교수, 도노히라 요시히코 일본 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대표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제1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의 현황과 과제’, 제2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봉환을 위한 제언’, 제3부 ‘유해를 통해 바라본 기억과 추모’, 제4부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우에다 케이시, 황동준, 허수동, 고바야시 토모코, 오일환, 고성만, 조성윤, 노용석, 타냐 바야틀레비치의 발표와 김민영, 김영환, 다케우치 야스토, 김민철, 박선주, 정유성 등 많은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의 저명한 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일본),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평화디딤돌, KIN지구촌동포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한베평화재단 등 한국과 일본의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단체소개와 함께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3일차 일정으로 지난 2019년 일본 통국사에서 국내로 봉환한 유해 74위에 대한 추모제를 제주 선운정사에서 지낸 후, 전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글·사진 이정은 (기획홍보국 직원)

국제심포지엄참가소회

“동아시아 포스트 콜로니얼 평화 연대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학살 문제나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관심은 항상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에 관한 지식은 적어도 2015년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5년 정병호 선생님이 주도하신 ‘70년만의 귀향’이 여러 매체 및 지인들을 통해 회자되고, 이와 관련한 여러 자료들을 접하면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과 관련해 가장 최초로 참여한 활동은 2019년 2월 오키나와 발굴이었다. 당시 본인은 오키나와의 기노자와 모토부 유해발굴과 관련한 현지조사 및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특징은 바로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의 확대였다.

일반적인 과거사청산의 형태는 일국가 체제를 넘어서는 다중적 형태의 청산이 쉽지 않다. 즉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에 대한 청산 및 권위주의 혹은 군사독재정권하 국가폭력 청산 등은 근대국민국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의 기억 혹은 목소리’로 변환되어야만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본다. 물론 과거지사 국가의 잘못에 대해 국가가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의 유해발굴 역시 국가폭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가 실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공식화 과거사청산’은 어떠한 측면에서 과거사청산의 본질적 측면을 흐리게 하는 부분도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모순이 증폭될 수 있다.

즉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기억’에 편입해야 한다는 모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사청산의 목적은 결국 ‘민중의 기억’ 혹은 ‘아래로부터의 기억’으로부터 탈출하여 ‘국가의 기억’으로 편입하는 것이었던가? 이러한 모순에 있어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 프로젝트는 과거사청산이 단지 근대국민국가 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한 공조적 포스트 콜로니얼이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은 항상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민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국가적 과거사청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공진화를 목표로 하면서, 각국의 결속된 시민사회 형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2020년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에 관한 심포지엄 역시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토론하면서 단지 국가를 정점으로 한 과거사청산을 실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공조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함께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었다. 본인이 이번 심포지엄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콘도르 작전과 같은 국가 간 공조 사례를 발표한 것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 프로젝트가 가지는 특징을 좀 더 다른 외국의 사례와 연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보여준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은 조만간 동아시아 평화공진화의 시대가 다가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화세력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라틴아메리카를 ‘친구’로 옆에 붙여주는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이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제 내 마음속에서도 동아시아의 평화가 좀 더 커다란 주제로 다가오는 것 같다.

글 노용석 (부경대학교 교수)



「 국제심포지엄참가소회 」

“열일하는 모습 뿌듯하고 고마워
없던 힘마저 샘솟은 시간 ”

행사 참여 제안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저 팬데믹에 지치고 거리 두기에 시름 앓던 몸과 마음 달래러 제주 가자는 마음이 더 컸다. 거기 더해 모처럼 동료와 동지들 다 모인다니, 그 모임 기쁘고 반가웠다. 정작 행사 시작되자 정신 번쩍 났다. 아니 그 전에 몸부터 바짝 쪼었다. 무엇보다 행사 구성과 진행이 ‘강제연행’으로 조이고, ‘집중학습’ 및 ‘체험학습’으로 즐였기 때문이다. 흔히 시내나 호텔 같은 데서 행사하면 늘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원천봉쇄’한 주최 측 주도면밀한 작전에 우리 모두 바로 뒹 걸렸다. 공항에서 바로 평화공원으로 실려 가 - 아, 점심 끼니 잠깐 때우고 - 짐도 풀지 못한 채 붙잡혀, 오후 내내 ‘열공’했다. 어디 그뿐인가? 이튿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틈없이 붙들리고 꼭 잡혔다. 잠시라도 딴짓하거나 어디 새버릴 겨를조차 없었다. 그렇다고 내용인들 허술했겠나? 사실 우리네 오랫동안 강제노동이나 유해발굴 같은 주제며 과제에 매달려 온 측들은 웬만한 세미나, 심포지엄에는 자못 시끄럽고 사뭇 시큰둥하기도 하다. 워낙 절절하고 절박한 역사며, 끔찍하고 참담한 현장 만나고 마주치며, 펍 웅숭깊은 이야기 줄곧 나눠 왔으니 말이다. 뒹보다 나처럼 승도 속도 아니게, 책상물림이면서 현장 언저리 다니며 실친 끝자리 더럽혀 온 되다만 인사는 더 그렇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아예 결이 달랐다. 이 코로나 와중에 영상까지 동원해 도노히라 스님 모시고 첫 자리 그득하게 차린 것부터 뿌듯했다. 게다가 서승 선생 - 에이, 여기서는 내 버릇대로 그냥 형이라고 하자 - 아니 우리 만형이 나이 들 둘러대며 짐짓 강제노동 희생, 유골 발굴 줄거리를 일본에서 제주로 4.3에서 여순 사건으로 잇대면서 땃바람에 땀진 줄거리 세운 건 그야말로 모든 걸 여는 말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우리네 안이한 폐쇄적 ‘우리주의’, 졸렬한 지역주의 꾸짖고, 동아시아로

오키나와로 넘나들면서 연대와 유대 본보기 보인 것이 그렇다. 또 터가 터인 만큼 그리고 평화공원인 만치, 4.3과 제주 군사기지화 문제 담론은 곳곳한 ‘신문대 할망’처럼 모든 주제와 토론 굵어 살뽀다. 설뽀 지치고 고단할 무렵 문득 울려 퍼진 ‘누에바 칸시온(nueva cancion)’ 같은 라틴 아메리카 사례는 또 어땠고? 나도 어쭙잖은 토론문에 썼지만, 그만저만한 타령이나 트로트 일색인 노래판에 대뜸 치고 들어온 메르세데스 소사의 목청처럼 서글서글하고 서늘했다. 여기다가 행사 내내 이어진 여러 관련 단체들 소개는 그야말로 백미요, 압권이었다. 이토록 웅골찬 집단들이 곳곳에서 이처럼 ‘열일’하는구나, 너무 뿌듯하고 고마운 나머지 없던 힘마저 샘솟고 기쁘다 못해 어쭙은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사람마다 어찌 그리 예쁘고 미쁘던지 ‘못난 늑덜은 얼굴만 봐두 반갑다’던 시구 떠올리면서 말이다. 이렇게 행사 내용은 알췌고 구성과 진행도 (‘뽀췌지만’) 매끄러웠고 무엇보다 만남과 모임은 질뽀했다. 제주 먹을거리 늘 탐하는 내게도 행사 내내 맛갈스러운 차림으로 추임새 가득해 고단하고 힘겨운 몸과 마음 잘 달래주곤 했다. 어디 먹을거리뿐이라? 날마다 그 고된 자리 마치자마자 모여들어 ‘한라산 등반’에 나서 만남, 사귄 다지며 제주 푸른 밤 밝혔다. 굳이 오랜 벗들 모처럼 만난 반가움 넘어, 새 벗들 사귄 기꺼움 담아 짧지만 깊고 가득한 밤 채웠다. 뒹보다 둘째 날 밤 바닷가 포장마차에서 조출하게 생일 축하도 해주고 문득 벌어진 노래잔치로 목청 모아, 목놓아 뜻과 재미 기리던 일은 아마도 오래도록 가슴에 저릿저릿 남을 터다. 끝으로 이런 자리 마련하느라, 행사 준비, 채비하고 진행하고 사람들 챙기느라 갖은 애 다 쓰고, 온갖 보살핌과 돌봄 다 기울여준 실무진에 너무너무 고맙다. 또 쉽잖은 내용 멋지게 번역하고 통역하느라 목이 다 쉰 분들 또한 가없이 고맙다. 헤어짐 아쉬워 던진 노용석 선생 헛약속(!) 꼭 붙들어 다음엔 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쪽에서 그쪽 팀들과 어울려, 거뜔 이런 뜨겁고 가득한 자리 다시 만들어 모아지는 헛꿈 꾸면서 허접한 후기 마무리하자.

글 정유성 (서강대학교 교수)

개회식 전경



축사
(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



주제발표 1
(우에다 케이시)



선운정사 추모제
추모사 낭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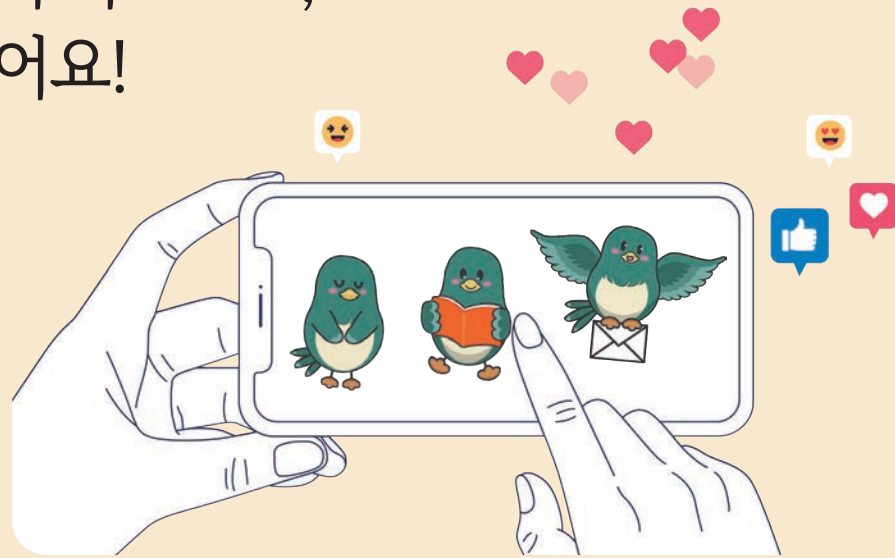
필드워크 알프르
비행장 관제탑





재단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포모가 태어났어요!

(feat. SNS 개설)



‘강제동원’하면 아프고 암울했던 역사와 여전히 전범책임과 불법행위 등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렇듯 무거운 기억을 잊어서는 안되기도 하지만, 마냥 아픈 기억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다. 일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평화·인권 교육의 장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쌍방향 소통창구로써 캐릭터 ‘포모’를 제작했다.

포모는 강제동원의 아픔을 극복하고 고국의 소식과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표현한 캐릭터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모습을 하고 있으며, 녹색을 사용해 신뢰감을 더욱 높였다. 처음 이름은 ‘고향(郷)’과 ‘향기(香)’ 의미를 합성한 ‘향이’였으나, 이보다 더 친근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 재단 및 역사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캐릭터 이름 공모전’을 실시했다. 캐릭터 이름은 이름 후보 접수(11월 2일~6일)를 받은 후 본선 투표(11월 9~10일)를 통해 선정된 1위 후보작으로 결정했다. 황동준 운영관리국장이 문화상품권 5만원을

찬조하며 관심이 높아진 이름 공모전에는, 8개의 이름 후보가 접수되었다. 본선투표는 총 28명이 투표했으며, 유효 투표수는 26표였다. 1위로 선정된 이름은 총 8표(득표율 31%)를 획득한 ‘포모(FoMo)’였다. 기획홍보국 정주희는 포모가 강제동원(Forced Mobilization)의 약자이자 재단 소식지 이름인 만큼 캐릭터에 사용 시, 강제동원과 소식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포모를 제안했다. 귀여운 어감은 덤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두리’(기획홍보국 김희근), ‘평강’(운영팀 김홍길) 등의 이름이 많은 호응을 받았다.

포모는 앞으로 재단 마스코트로써 일제 강제동원을 비롯해 재단·역사관 사업 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현재 포모를 이용한 달력 등이 제작될 예정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 또한 포모가 온라인에서 활동할 재단 SNS도 개설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할 ‘포모’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 (덧붙여 재단과 역사관 SNS에도!)

글 정주희 (기획홍보국 직원)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世界の人へ(세계의 사람에게) - 조선인 피폭자의 기록」 8mm 영화필름
(2019년 오카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기증)

군함도 강제동원 피해자 故 서정우 씨의 나가사키 미쓰비시의 강제동원과 조선인 피폭 증언을 담은 기록 영화

땅에 묻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건'이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대상** : - 일제강제동원피해자(노무자, 군인, 군무원, 여성) 관련
-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 해방 후 조선인 전범 관련 사진, 문서(명부, 편지, 일기, 증명서 등), 의류(군복 등), 도서 등
- **문의처**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획팀 ☎ 051-629-8615

※ 피해자 및 유족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피해자의 기록을 역사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수기집 출판



故 장윤만 님 수기집 (태평양전쟁실기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료 출판

- **출판대상** : 강제동원 피해자의 수기집, 체험집 등 원본 사료류
- **진행절차** : 피해자/유족 출판 신청 → 발간위원회 심사 → 원고작성·해제 → 출판
- **문의처**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 02) 721-1825

※ 피해자 및 유족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